

홈 리스(노숙인)

강 동 구

9월 초순 우리나라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만, 호주는 겨울을 밀어내는 따듯한 봄바람이 분다. 오늘은 오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저녁부터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작은아들이 다니는 교회의 교우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 시드니역에서 노숙인 급식 봉사를 몇 년째 해오고 있다. 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급식 장소로 가져간다. 오늘은 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야 하기에 오전부터 아내와 며느리가 음식 준비에 분주하다. 아내는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한마디 한다.

5~60명분의 밥과 불고기를 준비하고 커피와 주스 초코파이 등 음료와 과자류, 큰 제과점에서 팔고 남은 빵을 후원받아 함께 가져간다. 어떤 봉사자는 의류를 지원받아 나누어 주기도 한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어느 자매는 거울과 미용 도구를 가져와 이발 봉사도 한다. 이발 봉사는 상당한 인기가 있어 몇 사람씩 줄을 서기도 한다. 이처럼 각자 재능기부도 하며 시간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후원금으로 동참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워 보인다.

노숙인이라 하여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편견으로는 아니 할 말로 얻어먹는 처지에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더러 있다. 빵이나 과자 우유 등을 나누어 주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유통기한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커피도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평소에는 아들과 일곱 살짜리 손자가 함께하는데 오늘은 봉사자가 부족하니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가서 봉사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아들의 부탁에 선뜻 따라나섰다. 아들네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달려가니 시드니 도심에 있는 시드니역사 1층 주변에는 벌써 노숙인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노란 재킷을 입고 서둘러 급식 준비를 하고 아들이 준비해간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를 신호로 급식이 시작되었다. 유 레이즈 미 업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한다. 먼 이국땅에서 한국인들이 선진국 호주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는 호주 전역에 방영되는 TV에 봉사자들과 함께 아들과 손자가 소개되기도 하였

다. 먼 이국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들을 비롯한 우리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어떤 노숙자는 혼자가 아니고 가족을 동반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다. 한눈에 보아도 걸모습이 주인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여 물골이 말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앞다리를 다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다.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삶이 편안할 텐데 무슨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호주에도 예상외로 노숙인들이 많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노숙인이 없는 도시는 없는 것 같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 보아도 노숙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캐나다 동생 집에 머물면서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 노숙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점심을 대접한다. 노숙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 끼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목욕이 더 절실할 것 같다.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 시드니나 멜버른을 가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느 도시나 노숙인들은 대체로 한적한 공원이나 지하도 역사 등에서 노숙을 하는데 호주는 변화한 도심 인도에서 대낮에 침구를 펴놓고 노숙을 한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텐데 행정당국은 그대로 버려두는 것 같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에 그런가 보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숙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선 듯 이해가 안 되지만 무상무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저마다의 깊은 고뇌가 있지 않을까?

아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급식 봉사를, 하던 중 노숙인들 틈에서 대학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선배도 큰 꿈을 품고 호주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숙인으로 전락하여 방황하던 중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아들은 선배를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와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선배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여 인천 공항에서 가족들에게 선배를 인계하였다.

선배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자식을 찾아준 아들에게 항공료와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았지만, 선배의 집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넉넉한 집안이라고 한다. 선배는 부모에게 자신의 처지를 차마 알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노숙인으로 방황한 모양이다. 선배를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준 아들이 대견스럽다. 성경 말씀이 떠 오른다. 선을 베풀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끝)